

기준 판단자의 도입과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양정석 * †

연세대학교

Jeong-Seok Yang. 2015. Introducing Judge of Evaluation for the Analysis of Subjective Adjectival Predicates, Modals, and Evidential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9.1*, 119–146. Within the field of Korean linguistics, it has been observed that subjective adjectival predicate constructions are characteristic of imposing ‘coreference constraint’ on the higher and lower subjects, while evidential *-te-* constructions imposing ‘non-coreference constraint’ on them. I interpret these constraints as dependency constraints between higher and lower judge-sensitive semantic predicates, and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among subjective adjectival predicates, evidential *-te-*, and modal *-keyss-* in Korean. The paper ultimately argues for the necessity to add a new indexical element, the judge of evaluation (Lasnik 2005, Stephenson 2007), to the traditional set of indices that were confined to the world and the time. (Yonsei University)

Key words: subjective adjectival predicates, modality, evidentiality, *-te-*, *-keyss-*, judge dependency, judge of evaluation

1. 들어가기

한국어의 다음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¹ 형용사 어간(1가)과 선어말어미(1나, 1다), 또는 내포절 어미와 상위절 동사/형용사 어간의 결합(1다)이 단일한 통사 범주를 이룰 수는 없으므로, 이들이 가지는 공통성은 의미론적인 접근 방향에서 포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교내 미래선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3년 기간의 과제 ‘주관적 판단의 문법’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4년 12월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발표 시에 질의와 조언을 해 주신 이정민, 남승호, 염재일 교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의 세심한 논평에 따라 여러 가지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다.

† 220-71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yjsyang@yonsei.ac.kr

¹ 이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주관적 판단’의 의미는 구체적으로는 ‘기준 판단자 의존’의 의미라고 본다. 3, 4절에서 이를 위한, 형식화된 기술을 제시할 것이다. 이들 표현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상위절 주어 또는 주어 외의 상위절 논항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야말로 기준 판단자 도입의 주요 동기가 된다.

(1) 가. 주관성 형용사: 좋-, 싫-, 춥-, ...

나. 증거성(evidentiality)의 표현: ‘-더-’, ‘-네’

다. 양상(modality)의 표현: ‘-겠-’, ‘-을 것이-’, ‘-는가/나 보다’, ‘-는가/나 하다’, ‘-는가/나/지 싶다’, ‘-고 싶다’, ‘-는/은/을 듯싶다’, ‘-을 성싶다’, ‘-는/은/을 모양이다’, ‘-음직하다’, ‘-을 법하다’, ‘-을 수 있다’, ‘-는/은/을 것 같다’, 양상 의미의 연결어미들, 의문형어미들, 명제태도 동사들

이 표현들을 가지는 구문을 ‘주관적 판단 구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문들의 공통성이 Lasersohn(2005), Stephenson(2007)의 ‘기준 판단자(judge of evaluation)’에 의존하는 해석을 가지는 점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합성성 원리를 준수하는 통합적인 한국어 의미 해석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불가결한 부분 작업이 될 것이다. (1다)는 양상이 다양한 표현으로 실현됨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양상 표현 중 ‘-겠-’, 의문형어미, 명제태도 동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2절에서는 (1가-다)의 요소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합성성 원리의 구현을 위한 형식의미론의 전통에서 ‘발화맥락(utterance context)’, ‘특성(character)’, ‘내용(content)’의 개념(Kaplan1989)과, 기준 세계, 기준 시간에 더한 기준 판단자의 개념(Lasersohn2005, Stephenson2007)을 가능세계 의미론에 도입하는 과정을 보인다. 4절에서는 (1가)의 주관성 형용사, (1나)의 증거성 표현 ‘-더-’, (1다)의 양상 표현 ‘-겠-’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판단 구문들이 기준 판단자에 의존한 해석을 받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2. 주관적 판단 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에서의 주관적 판단 의미의 실현에 관한 메커니즘을 기술하는 데에는 주관성 형용사 구문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이흥배(1970), 양인석(1972) 등의 변형론적, 통사론 중심적 연구와 김홍수(1989), 양정석(1997), 유현경(1998), 김건희(2005), 이익환·이민행(2005) 등의 비변형론적, 의미론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흥배(1970)은 아직까지도 주관성 형용사 구문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이론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관성 형용사 문장의 적격성/부적격성의 구별이 형식적 이론 내에서 어떻게 포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생성의미론’적 통사 이론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변형 규칙이 주관성 형용사 문장의 적격성 여부를 예측한다.²

² 이흥배(1970)의 (2) 규칙에서 상위절 서술어인 X에는 동사 ‘말하-’, ‘묻-’이 실현되기도 하고, ‘다’, ‘느냐’와 같은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 ‘SAY’와 ‘ASK’가 실현되기도 한다. 이 둘을 화자 논항과 청자 논항을 가지는 의미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하에서 정리하는 주관성 형용사 구문의 단순문과 복합문, 의도의 ‘-겠-’ 구문의 단순문과 복합문, 그리고 ‘-더-’ 구문의 단순문과 복합문의 평행적인 사실들을 일반화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4절의 의미 기술에서는 주절의 종결어미 ‘다’, ‘느냐’의 의미 형식을 수행동사 ‘SAY’와 ‘ASK’를 활용하여 나타낼 것이다. 내포절의 ‘-다고’, ‘-느냐고’의 의미 형식에는 이러한 수행동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2) ‘하’ 삭제 변형 규칙 (이홍배1970:65)

NP-NP-S[NP-S[NP-X]_{S-하}]_{S-X}

1 2 3 4 5 6 7 ⇒

1 2 3 4 5 ∅ 7

조건: 7은 [+Linguistic]과 [+Communicative]를 포함해야 한다.

- a) 7이 [+Declarative]를 포함하면 1≡3.
- b) 7이 [+Question]을 포함하면 2≡3.
- c) 3≡4이면 이 규칙은 의무적 규칙이다.
- d) 3≠/≡4이면 이 규칙은 수의적 규칙이다.

(3) 가. 나는 춥다.

나. *나는 추워한다.

(4) 가. 철수는 춥다고 말했다.

나. *철수는 추워한다고 말했다.

(5) 가. 나는 인호가 좋다.

나. 나는 인호를 좋아한다.

(6) 가. 철수는 인호가 좋다고 말했다.

나. 철수는 인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7) 가. *인호는 춥다.

나. *순희는 인호가 좋다.

(8) 가. *철수는 인호가 춥다고 말했다.

나.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좋다고 말했다.

(2)의 규칙에 따라 (3)-(8) 문장들의 적격성/부적격성 차이가 정확하게 예측된다.³ 그러나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³ 이홍배(1970)에서 ‘*’ 표시는 통사적으로 부적격한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들이 통사적 부적격문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부적격한 문장이라고 보고 해당 예문들을 ‘??’로 표시할 것이다. ‘?’는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정되는 예임을 보이는 것이다.

- (9) 가. ‘춡다, 좋다’ 는 상태의 표현, ‘추워한다, 좋아한다’ 는 사건의 표현으로서 두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둘을 통사적 변형규칙으로 연관지을 수 없다.
- 나. 다음 (b) 의 부적격성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들 문장의 기저구조는 위 변형규칙의 조건 a)와 d)를 만족하게 되므로, ‘춡다’ 문장과 ‘추워한다’ 문장이 단순문, 복합문에서 모두 적격해야 한다.⁴
- a. 나는/너는/인호는 오늘 날씨가 춡다고 말했다.
- b. ?? 나는/?? 너는/?? 인호는 오늘 날씨를 추워한다고 말했다.
- 다. 다음 (a)가 부적격한 반면, ‘-겠-’ 이 개입된 (b)가 다시 적격성을 회복하는 현상을 예측하지 못한다.⁵
- a. ?? 순희는 인호가 싫다.
- b. 순희는 인호가 싫겠따.
- 라. ‘-겠-’ (의도 의미) 구문의 평행적 현상(후술), ‘-더-’ 구문의 상반되는 현상(후술)을 예측하지 못한다.⁶

양상도 주관적 판단 의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양상 요소는 ‘-겠-’이다. 이 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특별히 주목되는 선행 연구 몇 가지만을 들기로 한다. 남기심(1972)은 ‘-겠-’이 미확인법의 표지로서, ‘추측’, ‘의도’, ‘능력’의 의미적 용법을 가진다고 정리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기철(1979)은 ‘-겠-’이 ‘경험 당시, 즉 현재의 경험에 판단의 근거를 두는 추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관찰하였다. 이기용(1998)은 양상논리학의 기초를 소개하고 ‘-겠-’ 및 ‘-을 것-’을 가능 연산자로 기술할 토대를 논의하였다. 염재일(2005)에서는 ‘-겠-’과 ‘-을 것-’의 의미 차이에 대한 종래 논의를 종합하고 이들을 형식의미론 체계에 통합할 기초를 마련하였다.

증거성의 표현으로 다루어져 온 대표적 요소는 ‘-더-’이다. ‘-더-’의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 주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남기심(1972)는 상·하위절 논항의 비동시시 관계 등, ‘-더-’ 문장이 가지는 주요 통사·의미적 제약들을 정리하였다. 손호민(1975)은 ‘-더-’가 가지는 의미 요소들 중의 하나로 ‘PERCEIVE’에 주목하였다. 서정수(1977)은 ‘-더-’를 ‘보고’의 서법 요소로 규정하였는데, 그 제약의 하나로 ‘몸소 살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찰들은 송재목(1998), 임동식(2010)에서 ‘-더-’가 증거성의 표지로 규정된 것으로 맥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동완(1996)은 ‘-더-’가 시제 표지의 하나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인식 시점을 발화시 이전으로 옮기는 ‘시점 이동’을 이 요소의 본질적 기능으로 지적하였다. 이 외에 김영희(1981),

⁴ (b)의 부적격성은 ‘추워하다’의 어휘개별적 의미 정보에 따라 설명된다고 본다.

⁵ 4.3절에서 본 연구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⁶ 이홍배(1970)은 주로 주관성 형용사 구문에 국한된 이론으로서, 이후에 정리하는 ‘-겠- 구문’, ‘-더- 구문’에서 관찰되는 판단자 의존적 특성들을 포괄하는 확장적 이론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홍배(1970)은 물론, 이후에 나타나는 통사론적, 의미론적 이론들 중에서도 2절의 구문들의 제약의 패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은 발견할 수가 없다.

유동석(1981), 임홍빈(1982, 1993), 이정민(2014) 등에서 ‘-더-’의 중요한 일면들이 지적되었다.

‘-더-’를 증거성으로 규정하거나 증거성 의미의 실현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근래 연구의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임동식(2010)은 ‘-더-’의 ‘직접 증거’ 의미를 Heim&Kratzer(1998) 방식의 ‘전제’로 형식화하였다. 정경숙(2007)은 ‘-더-’와 ‘-네-’가 ‘공간적 직시’의 의미를 표현하는 시제 요소로서, 그 자체로는 증거성 표지가 아니고, 오히려 ‘-더-’와 ‘-네-’와 공존할 경우의 ‘’, ‘-었-’, ‘-겠-’이 증거성 표지라고 규정한다. 이정미(2011)은 ‘-더-’와 ‘-네-’를 증거성 표현으로 분석하였는데, 증거성을 인식 양상의 하나로 해석하여 양상기반(modal base)과 순서근거(ordering source)를 가지는 Kratzer(1981,1991)의 양상 의미론 체계 하에서 기술하였다.

이홍배(1970) 이래의 주관성 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이 구문의 통사·의미적 제약의 사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양상 요소 ‘-겠-’의 일부 용법에서도 동일한 제약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후술), ‘-더-’구문에서 반대 방향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후술)을 주의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관성 형용사 구문이 단순문과 복합문에서 보이는 적격성/부적격성의 패턴은 ‘동지시 조건’을 그 핵심으로 가지고 있다.⁷

(10) 가. 나는 인호가 싫다.

나. ?? 너는/?? 순희는 인호가 싫다.

(11) 가. ?? 나는/?? 순희는 인호가 싫으냐?

나. 너는 인호가 싫으냐?

(12) 가. 철수_i는 e_i/? 자기_i가 인호가 싫다고 말했다.

나. ?? 철수는 내가/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말했다.

(13) 가. ?? 철수_i는 순희에게 e_i/자기_i가 인호가 싫으냐고 물었다.

나. 철수는 순희_i에게 e_i 인호가 싫으냐고 물었다.

(12), (13)에서는 주관성 형용사 ‘싫-’로 말미암아 상위절 주어와 하위절 주어의 동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평서법의 단순문이 이홍배(1970)에서 상정한 수행동사 ‘SAY’와 같은 것을 그 상위 서술어로 가지며, 의문법의 단순문이 수행동사 ‘ASK’와 같은 것을 그 상위 서술어로 가진다고 상정하면, (10), (11)의 단순문에서도 ‘싫-’로 말미암아 동일한 동지시 관계가 실현됨을 관찰할 수 있다.

⁷ (10나)는 담화화용적 맥락에 따라 다시 적격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인 (11가), 복합문인 (12나), 그리고 두 가지 특성을 겸유한 (13가)는 그것이 가능한 것 같지 않다. 적어도 (10나)와 차이가 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의도의 ‘-겠-’구문인 (14)-(17)에서는 이 같은 평서법 단순문과 그 외 구문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4.1절에서 (10나)의 적격성 회복에 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의도의 ‘-겠-’ 문장에서도 동일한 동지시 조건이 작동한다. (10)-(13) 과 (14)-(17) 은 적격성/부적격성의 패턴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는 주관성 형용사 ‘싫-’, 양상의 요소 ‘-겠-’ 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에서 적격/부적격의 판단은 모두 ‘의도’ 의미에 바탕을 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14) 가. 나는 그곳에 가겠다.

나. ?? 너는/?? 순희는 그곳에 가겠다.

(15) 가. ?? 내가/?? 그가 그곳에 가겠느냐?

나. 네가 그곳에 가겠느냐?

(16) 가. 철수는_i 순희에게 e_i/? 자기_i가 그곳에 가겠다고 말했다.

나. ?? 철수는 네가/순희가 그곳에 가겠다고 말했다.

(17) 가. ?? 철수_i는 순희에게 e_i/자기_i가 그곳에 가겠느냐고 물었다.

나. 철수는 순희_i에게 e_i 그곳에 가겠느냐고 물었다.

이상의 ‘동지시 조건’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두 논항에 표시된 ‘ α ’ 가 두 논항의 동지시 관계를 나타낸다. ‘F’ 는 주관성 형용사 ‘싫-’ 이나 양상 요소 ‘-겠-’ 이 가지는 핵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18) 가. SAY(X^α , Y, F(α , ...))

나. ASK(X, Y^α , F(α , ...))

주관성 형용사를 가지는 평서법의 절에서는 화자 또는 ‘말하다’ 의 주어와 ‘싫-’ 의 경험자 주어와의 동지시가 요구되며, 의문법의 절에서는 청자 또는 ‘묻다’ 의 간접목적어 (‘NP-에게’ 논항)와 ‘싫-’ 의 경험자 주어와의 동지시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겠-’ 을 가지는 평서법의 절에서는 화자 또는 ‘말하다’ 의 주어와 ‘-겠-’ 절의 주어와의 동지시가 요구되며, 의문법의 절에서는 청자 또는 ‘묻다’ 의 간접목적어와 ‘-겠-’ 절의 주어와의 동지시가 요구된다. 이는 주관성 형용사와 의도의 ‘-겠-’ 이 공통의 메커니즘을 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뒤의 4절에서는 주관성 형용사와 의도의 ‘-겠-’ 이 주관적 판단의 의미를 표현하는 요소들이며, 이들 요소는 내재적으로 그 판단의 주제, 즉 ‘기준 판단자’ 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이상의 사실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 패턴이 보여주는 ‘-더-’ 문장의 통사-의미적 제약의 핵심은 ‘비-동지시 조건’ 이다.

(19) 가. ??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

나. 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

(20) 가. 내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

나. ??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

(21) 가. ?? 철수_i는 e_i/자기_i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나. 철수는 내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22) 가. 철수는 너에게/순희에게 내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고 물었다.

나. ?? 철수는 너_i에게/순희_j에게 네_i가/자기_j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고 물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더-’의 비-동지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23) 가. *SAY(X^α , Y, $F'(\alpha, F''(\alpha, \dots))$) : -더라, -데1, -습디다, -더니, -던데,
-더구나, -더구만

나. *ASK(X, Y^α , $F'(\alpha, F''(\alpha, \dots))$) : -더냐, -데2, -습디까

‘F’를 중심으로 관찰해 보면, ‘-더-’문장에도 ‘동지시’의 요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F''의 첫째 논항이 ‘ α ’만 아니면 위 (18)과 같은 동지시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다. ‘-더-’가 나타내는 회상이나 직접 경험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화자나 상위절 주어의 판단을 내포한다.

(24) 가. SAY(X^α , Y, $F'(\alpha, \dots)$)

나. ASK(X, Y^α , $F'(\alpha, \dots)$)

뒤의 3절에서 형식적 기술 장치들이 준비되고 나면 (24)의 ‘동지시’의 사실은 ‘-더-’의 양상적 의미가, (23)의 ‘비-동지시’의 사실은 ‘-더-’가 가지는 증거성 의미가 유발하는 것임을 보이게 된다(4절).

주관성 형용사와 ‘-더-’가 공존하는 문장의 통사·의미적 제약은 다시 (18)의 ‘동지시 조건’이다. 주관성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이 ‘-더-’의 의미적 특성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25) 가. 나는 인호가 싫더라.

나. ?? 너는/?? 순희는 인호가 싫더라.

(26) 가. ?? 나는/?? 순희는 인호가 싫더냐?

⁸ (23)에 제시한 ‘-더-’ 결합 어미는 원리상 결합 가능한 어미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합형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도출되지도 않는다(양정석 2008, 2011). 따라서 이들 각각을 단일한 어휘 항목으로 간주하여 의미 기술을 해야 한다. 어원적으로 ‘-더-’ 결합형에서 기원하는 ‘-던’, ‘-든지’, ‘-든가’는 (23)의 제약을 갖지 않으므로 증거성 표현의 예에서 제외한다.

나. 너는 인호가 싫더냐?

(27) 가. 철수_i는 e_i/?⁹ 자기_i가 인호가 싫더라고 말했다.

나. ??철수는 네가/순희가 인호가 싫더라고 말했다.

(28) 가. ??철수_i는 순희에게 e_i/자기_i가 인호가 싫더냐고 물었다.

나. 철수는 순희_i에게 e_i 인호가 싫더냐고 물었다.

증거성 표현의 다른 예인 종결어미 ‘-네’ 도 ‘-더-’와 동일한 통사·의미적 제약, 즉 ‘비-동시시 조건’을 가진다.⁹ 그러나 (26)-(28)은 모두 ‘-네’가 가지는 형태통사론적 특성에 따라 실현 불가능하다. ‘-더라고’, ‘-더냐고’라는 복합적 어휘항목은 존재하지만,¹⁰ ‘-네고’라는 복합적 어휘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7), (28)에 대응하는 문장 형식은 생성될 수 없다. 의문형 종결어미로서의 ‘-네’의 어휘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6)에 대응하는 문장 형식은 생성될 수 없다.

(29) 가.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

나. 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

(30) 가. *내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

나. *네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

(31) 가. *철수_i는 e_i/자기_i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고 말했다.

나. *철수는 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고 말했다.

(32) 가. *철수는 너에게 내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고 물었다.

나. *철수는 너_i에게 네_i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네고 물었다.

‘-네’의 증거성 의미는 ‘-더-’에 준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논문에서는 더 다루지 않는다.

근래의 증거성에 대한 연구인 임동식(2010), 이정미(2011) 등에서는 다음 예들의 ‘-다-’ (혹은 ‘-대/래-’)를 보고 증거성(reportative evidentiality)을 표현하는 요소로 다루어 왔다.¹¹ 이들은 ‘-고’와 ‘-하-’가 형태음운론적으로 생략된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남기심 1973, 채희락 2006). (35), (36)처럼 복합문 구성으로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예의 존재는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⁹ ‘-네’가 ‘-더-’와 유사하게 증거성 또는 증거성 관련 의미를 가진다는 관찰은 장경희(1985), 정경숙(2007), 이정미(2011)에서 있어 왔다.

¹⁰ 뒤의 각주 29 참조.

¹¹ 이정미(2011)는 논문 앞부분에서 (33), (34)와 같은 예가 복합문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뒷부분의 ‘비가 온다더라’에 대한 설명에서는 ‘비가 온다’와 같은 단순문에 ‘-더-’와 ‘-라’가 차례로 결합되면서 의미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통사적 구성성분 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35), (36)의 예들은 그와 같은 처리를 부정한다.

(33) 가. 비가 온대/온단다/온답니다.

나. 개가 반장이래/반장이란다/반장이랍니다.

(34) 가. 비가 오더래/오더란다/오더랍니다.

나. 개가 반장이더래/반장이더란다/반장이더랍니다.

(35) 가. 개가 너를 뻔뻔스럽대/뻔뻔스럽단다.

나. 그 아이가 선생님을 인자하시답니다.

다. 사람들이 그분을 의인이랍니다.

(36) 가. 개가 너를 뻔뻔스럽더래/뻔뻔스럽더란다.

나. 그 아이가 선생님을 인자하시더랍니다.

다. 사람들이 그분을 의인이더랍니다.

예외적으로 ‘친밀성’을 표현하는 어휘적 복합 형식이 존재한다. ‘-는단다, -는다네, -는다오, 는답니다’의 네 개로 제한된다(남기심1973).

(37) 가. 나는 여기에 매일 온단다.

나. 나는 여기에 매일 온다네.

다. 나는 여기에 매일 온다오.

라. 저는 여기에 매일 온답니다/그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랍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다’ 등을 증거성 표현의 예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정민(2014:2.4절)은 이들 예가 복합문 구성에서 ‘-고’와 ‘-하-’가 차례로 삭제되고, ‘-다/냐/라/자’의 ‘아’모음이 ‘에’모음으로 바뀌는 형태음운론적 절차에 따라 생성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한편 단순문 구성이라고 보아야만 할 용법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예를 제시했다.

a. 미아가 어지럽더래.

이 예는 ‘미아가 자신이 어지럽다고 말했다’는 뜻의, 복합문 구성에 바탕한 해석과, 단순문 구성에 바탕한 해석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후자의 해석은 ‘-래’의 ‘보고 증거성’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정규적 용법이 아니고, 단순문 ‘?? 미아는 어지러워.’가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해석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어지럽다’는 주관성 형용사의 하나이다. 이 예는 (10나)가 부적격하지만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용인된다(4.1절 말미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해석에서도 ‘?? 미아가 어지럽더래’ (‘??’는 필자의 판단임)는 복합문 구조를 이룰 뿐이다.

3. 형식의미론 연구와 ‘판단자’ 개념의 등장

3.1 표준적 형식의미론에서의 합성성 원리 구현 방법

형식의미론 연구는 프레게(G. Frege)의 합성성 원리를 구현하는 일을 궁극의 목적으로 가진다.¹² Heim & Kratzer(1998)에 따르면 표준적 형식의미론에서의 합성성 원리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다음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¹³

- (38) 함수 적용 규칙 (FA: functional application, Heim & Kratzer1998:95)
 α 가 분지교점이고 $\{\beta, \gamma\}$ 가 그 딸성분(daughter)들의 집합이면, 어떠한 치할당 함수 a 에 대해서도 다음이 성립한다.
 $[\beta]^a$ 가 그 영역 안에 $[\gamma]^a$ 를 포함하는 함수이면, $[\alpha]^a = [[\beta]^a([\gamma]^a)]$ 이다.

양상이나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내포(intension)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하는 것 역시 표준적 형식의미론의 실행 방법이다. (39), (40)은 가능세계(w)를 기준점으로 삼아 동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예를 보여준다. 명제태도 동사는 가능세계 변수에 대한 양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상 표현의 일종이다. (41)은 기준 가능세계를 포함하는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의 기본적 형식이다.

- (39) 가. 1자리 술어의 내포 의미: 타입 $\langle s, \langle e, t \rangle \rangle$,
 $[\text{튀}-]^w = \lambda x : x \in D_e. [\text{세계 } w \text{에서 } x \text{가 튀다}]$
 나. 2자리 술어의 내포 의미: 타입 $\langle s,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사랑하-}]^w = \lambda x : x \in D_e. \lambda y : y \in D_e. [\text{세계 } w \text{에서 } y \text{가 } x \text{를 사랑한다}]$
- (40) 명제태도 동사
 가. $[\text{생각하-}]^w = \lambda p : p \in D \langle s, t \rangle . [\lambda x : x \in D. \text{세계 } w \text{에서 } x \text{가 생각하는 바와 양립가능한, } w' \in W \text{인 모든 } w' \text{에 대하여, } p(w') = 1]$

¹² 프레게의 합성성 원리는 (a)와 같이 서술된다. 이는 이정민(2012)의 서술을 따른 것이다.

a. 한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와, 그 결합되는 방식의 함수이다.

¹³ Heim & Kratzer(1998)에 따르면 통사구조의 두 구성성분이 주어질 때 그 합성된 의미 형식을 얻는 규칙은 (38) 규칙과 다음 (a) 규칙과 (b) 규칙의 세 가지이다. 이 외에 대명사나 흔적의 해석을 위한 규칙 (c)과 그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활용되는 규칙(d)이 더 필요하다.

a. 술어 수식 규칙 (PM: predicate modification rule, Heim & Kratzer1998:95)

α 가 분지교점이며, $\{\beta, \gamma\}$ 가 그 딸성분들의 집합이면, 어떠한 가능세계 w 와 치할당 함수 (assignment function) a 에 대해서도 다음이 성립한다. $[\beta]^a$ 와 $[\gamma]^a$ 가 둘 다 $\langle e, t \rangle$ 타입이면, $[\alpha]^a = \lambda x : x \in D_e. [\beta]^a(x) = [\gamma]^a(x) = 1$ 이다.

b. 술어 추상 규칙 (PA: predicate abstraction rule, Heim & Kratzer1998:114)

α 가 분지교점이며 β_i 와 γ 가 딸성분이고, β 는 관계대명사나 ‘such’이고, $i \in N$ (자연수)이면, 모든 변수 치할당 함수 a 에 대해서 $[\alpha]^a = \lambda x : x \in D_e. [\gamma]^a(x) = [\beta_i]^{ax/i}$ 이다.

c. 흔적 및 대명사 규칙 (Heim & Kratzer1998: 111의 규칙을 조금 고침)

A 가 흔적/대명사이고, a 가 치할당 함수이며, $i \in \text{dom}(a)$ 이면, $[A_i]^{ax/i} = a^{x/i}(i)$ 이다.

d. 지표갱신치할당 규칙 (assignment modification, Heim & Kratzer1998:112)

a 가 치할당 함수이며, $i \in N$ 이고 $x \in D_e$ 라고 상정하면, $a^{x/i}$ 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유일한 치할당 함수이다.

(i) $a^{x/i}$ 의 영역은 a 의 영역과 $\{i\}$ 의 합집합이고,

(ii) $a^{x/i}(i) = x$ 이고,

(iii) $a^{x/i}$ 의 영역의 원소인 모든 j 에 대해서 $j \neq i$ 일 때, $a^{x/i}(j) = a(j)$ 이다.

나. $\llbracket \text{알-} \rrbracket^w = \lambda p : p \in D < s, t > . [\lambda x : x \in D. \text{세계 } w \text{에서 } x \text{가 아는 바와 양립가능한, } w' \in W \text{인 모든 } w' \text{에 대하여, } p(w') = 1]$

(41)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IFA: Heim & Kratzer 1998: 308)

α 가 분지교점이고 $\{\beta, \gamma\}$ 가 그 딸성분들의 집합이면, 어떠한 가능세계 w 와 치할당 함수 a 에 대해서도 다음이 성립한다. $\llbracket \beta \rrbracket^{w,a}$ 가 그 영역 안에 $\lambda w'. \llbracket \gamma \rrbracket^{w',a}$ 를 포함하는 함수이면, $\llbracket \alpha \rrbracket^{w,a} = \llbracket \beta \rrbracket^{w,a}(\lambda w'. \llbracket \gamma \rrbracket^{w',a})$ 이다.

람다 표현의 세계 변수 w' 이 기준 세계로부터 그 논항인 명제가 표현하는 세계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2 기준 판단자의 도입과 대안집합

Kaplan(1989)에 따르면 언어 표현은 ‘특성(character)’과 ‘내용(content)’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¹⁴ ‘특성’은 발화의 맥락들과 무관한 고정적 의미이다. 이에 대비되는 ‘내용’은 발화의 맥락이 정해진 의미이다. “나는 지금 서울에 있다.”와 같은 발화는 어느 맥락(즉, 맥락1, 맥락2, ...)에서도 동일한 ‘특성’ 의미를 갖지만, 각 맥락에서는 각기 구별되는 ‘내용’ 의미를 가진다. 이들을 형식화하기 위해 한 표현의 ‘특성’을 맥락들로부터 내용으로 가는 함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표현의 ‘내용’은 세계, 시간의 순서쌍 $\langle w, t \rangle$: 이를 ‘지표index’라고 지칭한다)들로부터 외연으로 가는 함수라고 정의한다. 즉, ‘내용’ 의미는 곧 내포(intension)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특성’ 의미는 맥락들로부터 그 문장의 내포(즉, 명제)로 가는 함수인 셈이다.

(42) 가. 표현 α 의 특성: $\lambda c. \lambda \langle w, t \rangle . \llbracket \alpha \rrbracket^{c;w,t}$

나. 맥락 c 에서의 표현 α 의 내용(=내포): $\lambda \langle w, t \rangle . \llbracket \alpha \rrbracket^{c;w,t}$

맥락을 기준점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43)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IFA')

α 가 분지교점이고 $\{\beta, \gamma\}$ 가 그 딸성분들의 집합이고, $\llbracket \beta \rrbracket^{c;w,t}$ 가 그 영역 안에 $\lambda w'. \lambda t'. \llbracket \gamma \rrbracket^{c;w',t'}$ 를 포함하는 함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llbracket \alpha \rrbracket^{c;w,t} = \llbracket \beta \rrbracket^{c;w,t}(\lambda w'. [\lambda t'. \llbracket \gamma \rrbracket^{c;w',t'}])$

Lasersohn(2005)에서는 의견의 차이, 취향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판단자(judge)’라는 새로운 기준점 매개변수를 도입하였다. Stephenson(2007)은 이를 받아들여, 종래의 세계, 시간의 지표 $\langle w, t \rangle$ 에 판단자 ‘ j ’를 더하여 $\langle w, t, j \rangle$ 와 같이 나타내었다. 판단자는 개체로서, e 타입이다. 기준 세계, 기준 시간에 덧붙여 주관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준 판단자를 도입함으로써, 주관적 판단 구문들에서의 판단자 의존 의미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¹⁴ 이정민 교수는 ‘character’, ‘content’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각각 ‘원뜻’, ‘내용’을 제안하였다(사적 담화).

(44) 가. $\llbracket \text{나} \rrbracket^{c;w,t,j} = s(c) = c$ 의 화자

나. $\llbracket \text{너} \rrbracket^{c;w,t,j} = a(c) = c$ 의 청자

(45) 가. $\llbracket \text{뛰-} \rrbracket^{c;w,t,j} = \lambda x.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j \text{에게, } x \text{가 뛰다}]$

나. $\llbracket \text{책} \rrbracket^{c;w,t,j} = \lambda x.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j \text{에게, } x \text{가 책이다}]$

(46) $\llbracket \text{읽-} \rrbracket^{c;w,t,j} = \lambda x_e. \lambda y_e.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j \text{에게 } y \text{에게 } x \text{가 읽다}], \text{여기에서 } j = y \text{ (cf. Lasersohn2005, Stephenson2007)}$

(44), (45)의 어휘 요소들은 기준 판단자에 의존하는 해석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46)의 주관성 형용사는 그 경험자 논항이 기준 판단자에 의존하는 해석을 가짐이 ‘ $j = y$ ’와 같이 명시되었다.¹⁵ 맥락 c 와 지표 $\langle w, t, j \rangle$ 를 기준점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또 다시 수정한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다.

(47) 내포적 함수 적용 규칙 (IFA’)

α 가 분지교점이고 $\{\beta, \gamma\}$ 가 그 딸성분들의 집합이고, $\llbracket \beta \rrbracket^{c;w,t,j}$ 가 그 영역 안에 $\lambda w'. \lambda t'. \lambda j'. \llbracket \gamma \rrbracket^{c;w',t',j'}$ 를 포함하는 함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llbracket \alpha \rrbracket^{c;w,t,j} = \llbracket \beta \rrbracket^{c;w,t,j} (\llbracket \lambda w'. [\lambda t'. [\lambda j'. \llbracket \gamma \rrbracket^{c;w',t',j'}]]])$

Lewis(1979) 등에 의해 주어진 ‘자기지향적 태도 (attitudes de se)’의 개념이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Chierchia(1989) 이래로 언어학자들에게 의해 형식의미론, 생성통사론의 이론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Stephenson(2007)은 자기지향성을 판단자 중심의 내포 의미론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집합 (alternatives: 대안적 세계-시간-판단자의 집합)’의 정의에 그 관계 ($x = y$)를 표시하였다.

(48) 가. 세계 w , 시간 t , 판단자 x 의 기준에서의 믿음 대안집합 (Doxastic alternatives): $Dox_{w,t,x} = \{ \langle w', t', y \rangle \mid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가 믿는 바는 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x = y \text{임과 양립가능함} \}$

나. 세계 w , 시간 t , 판단자 x 의 기준에서의 인식 대안집합 (Epistemic alternatives): $Epist_{w,t,x} = \{ \langle w', t', y \rangle \mid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가 아는 바는 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x = y \text{임과 양립가능함} \}$

다. 세계 w , 시간 t , 판단자 x 의 기준에서의 의도 대안집합 (Intention alternatives): $Intend_{w,t,x} = \{ \langle w', t', y \rangle \mid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가 의도하는 바는 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x = y \text{임과 양립가능함} \}$

¹⁵ 이 의미 형식에는 의미역의 차이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험자’와 같은 의미역이 명시되더라도 한국어의 주관성 형용사들은 (46)의 ‘ $j = y$ ’와 같은 판단자 의존의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른 곳에서 술어해체 분석에 의해 표시되는 의미역 구조가 의미구조의 한 층렬 (기술 층렬: descriptive tier)로 명시되고, 본 논문에서 논하는 의미 형식이 다른 층렬 (지시 층렬: referential tier)로 나타내어지는 의미구조 표상의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양정석2011). 그와 같은 가정에서의 기술 층렬에는 ‘경험자’와 같은 의미역 특성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2절에서 제시한 문장 패턴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들이 가지는 제약이 기준 판단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체계적으로 설명됨을 보이고자 한다. 명제태도 동사 ‘생각하다’ / ‘믿다’의 의미 기술을 위해서는 (48가)가, 두 가지 용법의 ‘-겠-’의 양상 의미 기술을 위해서 (48나)와 (48다)가 활용됨을 보이게 된다. 증거성의 ‘-더-’ 구문을 위해서는 (48나)를 포함하는 복합적 형식이 고안된다.

4. 한국어 주관적 판단 구문에서의 판단자의 역할

4.1 주관성 형용사 구문

한국어에서 주관성 형용사는 문법적 자연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자연군은 ‘-어하-’의 결합에 의해서 ‘객관적’ 어휘 요소(‘싫어하-’ 등)를 형성하는 형태통사론적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양정석1997:228-244). 이들이 공유하는 의미론적 특성은 앞에서 제시한 (46)과 같은 형식의 정의를 가지는 점에 있다.¹⁶

$$(46)' \quad [[\text{싫}-]]^{c;w,t,j} = \lambda x_e. \lambda y_e.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j \text{에게 } y \text{에게 } x \text{가 싫다}], \& j = y]$$

종결어미들의 어휘의미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9나)의 의문형 어미는 뒤의 4.2절에서 수정된다. c^* 는 현재 발화 맥락, $s(c^*)$ 는 화자, $a(c^*)$ 는 청자를 나타낸다.¹⁷

$$(49) \text{ 가. } [[-\text{다}]]^{c*;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SAY}(s(c^*), a(c^*), p(w)(t)(j)) \& t = \text{now} \& j = s(c^*)] = 1$$

¹⁶ (46)에서 ‘여기에서 ...’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을 ‘& ...’로 바꾸었다. 이는 이 부분이 영역 조건이 아니고 진리조건적 연결 연결사에 의한 연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명의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기준 판단자는 언어철학, 형식의미론에서의 맥락주의(contextualism) 대 상대주의(relativism)의 논쟁에서 상대주의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맥락주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한 von Fintel & Gillies(2007)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들의 논증은 양상소 ‘must’, ‘might’의 예를 근거로 한 것이다. Stephenson(2007)에서는 이들 양상소와 함께 취향 형용사(predicates of personal taste) ‘fun’, ‘tasty’의 문장을 근거로 기준 판단자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가령, (a) 문장은 (b)와 (c)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 PROJ는 판단자 j 로 해석되는 통사구조의 공범주 대명사이다. pro는 일반적 공범주 대명사로서, 맥락에서 주어지는 화자 아닌 외재적 판단자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른 중의적 해석을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준 판단자 개념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a. The roller coaster is fun!
b. The roller coaster is fun for PROJ
c. The roller coaster is fun for pro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싫-’을 대표로 하는 한국어의 주관성 형용사는 영어의 취향 형용사와 달리 (c)에 상당하는 해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명의 심사자가 든 ‘롤러코스터가 재미있어/재미없어.’와 같은 한국어 예는 주관성 형용사 문장이다(‘롤러코스터를 재미있어한다/재미없어한다.’처럼 ‘-어하-’ 결합형이 가능하다). 2절에서 정리한 주관성 형용사 문장들(평서문/의문문, 단순문/복합문)의 제약의 패턴은 통사론적으로만은 포착할 수 없고, 의미론적으로도 기준 판단자의 개념 없이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의에서 보이고자 하는 점이다. 더욱이, 양상 표현인 의도의 ‘-겠-’ 구문, 증거성 표현인 ‘-더-’ 구문에서도 일관된 제약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은 기준 판단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만 만족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

¹⁷ ‘-다-고’는 두 통사 단위인 ‘-다’와 ‘-고’가 통사적 재구조화에 의해 복합 모순소를 이룬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양정석2010:325-335).

$$\text{나. } \llbracket -\text{느냐} \rrbracket^{c*;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 \text{ASK}(s(c*), a(c*), p(w)(t)(j)) \ \& \\ t = \text{now} \ \& \ j = a(c*)] = 1$$

$$\text{다. } \llbracket -\text{다} - \text{고} \rrbracket^{c*;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 p(w)(t)(j) = 1$$

‘SAY’와 ‘ASK’는 이홍배(1970)을 비롯한 생성의미론적 연구에서 통사구조 및 의미구조의 요소로 사용하던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이다. 전자는 다시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다고 본다. 화용론적으로 단언(assert)은 공유배경(common ground)에 해당 명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제의라고 가정한다(Stalnaker1978,2002).¹⁸

$$(50) \text{ SAY}(x, y, P) = 1 \text{ iff } \text{assert}(x, P)$$

이제 2절에서 해결 과제로 제기한 예문들을 하나씩 설명하기로 한다. (10가, 나), (11가, 나)의 적격성/부적격성의 차이가 이들 의미 형식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인호’, ‘순희’, ‘화자’, ‘청자’ 등의 개체들이 서로 동지시 또는 비-동지시됨을 확인하는 일은 이들이 Kamp & Reyle(1993)과 같은 담화표상이론의 담화 표상에 기록되는 담화지시체로 주어지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보겠다.

(10)′ 가. “나는 인호가 싫다.”의 의미 해석:

$$\llbracket -\text{다} \rrbracket^{c*;w,t,j} (\lambda w'. \lambda t'. \lambda j'. \llbracket \text{나는 인호가 싫다} - \rrbracket^{c*;w',t',j'}) \\ = \llbracket -\text{다} \rrbracket^{c*;w,t,j} (\lambda w'. \lambda t'. \lambda j'. \llbracket \text{싫다} - \rrbracket^{c*;w',t',j'} (\text{인호}')) (s(c*)) \\ = 1 \text{ iff } [\text{SAY}(s(c*), a(c*),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s(c*) \text{에게 인호} \text{가 싫다} \\ \& \ j = s(c*)])] \ \& \ t = \text{now} \ \& \ j = s(c*)]$$

나. “?? 순희는 인호가 싫다.”의 의미 해석:

$$\llbracket -\text{다} \rrbracket^{c*;w,t,j} (\lambda w'. \lambda t'. \lambda j'. \llbracket \text{싫다} - \rrbracket^{c*;w',t',j'} (\text{인호}') (\text{순희}')) \\ = 1 \text{ iff } [\text{SAY}(s(c*), a(c*),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순희} \text{에게 인호} \text{가 싫다} \\ \& \ j = \text{순희}])] \ \& \ t = \text{now} \ \& \ j = s(c*)]$$

(11)′ 가. “?? 나는 인호가 싫으냐?”의 의미 해석:

$$[\text{ASK}(s(c*), a(c*),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s(c*) \text{에게 인호} \text{가 싫다,} \\ \& \ j = s(c*)])] \ \& \ t = \text{now} \ \& \ j = a(c*)]$$

나. “너는 인호가 싫으냐?”의 의미 해석:

$$[\text{ASK}(s(c*), a(c*),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 s(c*) \text{에게 인호} \text{가 싫다} \\ \& \ j = a(c*)])] \ \& \ t = \text{now} \ \& \ j = a(c*)]$$

(10나)′에서는 판단자 j 가 ‘순희’ 이면서 화자(‘ $s(c*)$ ’)인 모순된 결과가 도출됨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또 (11가)′에서는 판단자 j 가 청자(‘ $a(c*)$ ’)이면서 화자(‘ $s(c*)$ ’)인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¹⁸ 이는 표준적 형식의미론의 가정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과 명령을 각각 질문 집합(Question Set)과 행동목록(To-do list)에 가능한 대답들과 행동들을 추가하는 절차라고 가정할 수 있다(Portner2004,2009:188-196). 의문형어미의 의미 기술(49나)에 주어진 ‘ASK’는 이 같은 절차를 위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주관성 형용사가 내포절의 서술어로 실현되는 복합문의 예들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 소절에서 명제태도 동사들의 의미 형식을 도입한 후에 검토하기로 한다.

(10나)의 문장이 특정 상황맥락에서 적격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18가)의 패턴을 위배하는 ‘-겠-’ 문장 (14나), (16나)와, (18나)의 패턴을 위배하는 주관성 형용사 문장 (11가), (13가)가 적격성 회복이 불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51) 가. ?? 순희는 인호가 싫다. (= (10나))

나. ?? 순희는 인호가 싫었다.

(51) 문장들의 적격성이 회복되는 현상은 ‘순희’를 포함하고 화자인 ‘나’를 포함하는 개인들의 집합을 상정하는 보충적 의미 해석 절차가 주어져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설명 가능하게 된다.

(52) 가. 우리는 인호가 싫다.

나. 우리 순희는 인호가 싫어.

(52가)는 ‘나’ 뿐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우리’가 ‘동지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52나)는 ‘우리’로 수식함으로써 해당 개인과 ‘나’를 포함하는 개인들의 집합을 상정하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¹⁹ 이들 예((10나)와 (52가, 나))의 공통점은 주관성 형용사 ‘싫-’에 의해 부과되는 ‘화자’와의 동지시 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4.2 명제태도 동사와 의문형어미

문법 요소 아닌 동사가 양상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명제태도 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기준 판단자 전이’의 현상을 동사의 어휘적 정보의 일부로 나타내고자 한다. 보문의 판단자는 상위절의 판단자와 같지 않다. 상위절 동사인 ‘생각하다’의 주어 논항이 믿음 대안세계의 정의에 따라 판단자(x)와 일치함으로써 보문 명제의 판단자가 된다.

(53) 가. $\llbracket \text{생각하-} \rrbracket^{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 \lambda z_e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Dox}_{w,t,z}$
 $: p(w')(t')(x) = 1$

¹⁹ Stephenson(2007:151-154)은 영어의 ‘want’ 문장에서의 ‘부분 통제(partial control)’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을 제안하였다. ‘PROJ-PLUR’는 ‘PROJ’ 및 ‘pro’ (각주18 참조)와 교체 관계에 있는 통사구조의 공범주 대명사이다.

a. $\llbracket \text{PROJ-PLUR} \rrbracket^{c:w,t,j} = Gc(j)$,

여기에서 $Gc(x)$ 는 x 를 포함하는 맥락 c 에서 현저한 개인들의 집합

필자는 (51)의 ‘순희는’, (52)의 ‘우리는’, ‘우리 순희는’을 이들을 포함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전이시키는 구문 규칙이 한국어에 주어짐으로써 해당 문장들의 부적격성이 해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분 통제 현상을 포함하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곧이어 독립된 연구에서 다루려고 한다.

- 나. [[인호는비가온다고생각한다]]^{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lambda z_e.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z} : p(w')(t')(x) = 1]$$

$$(w'' . t'' . j'' . [[비가온다]]^{w'', t'', j''})([[인호]]^{w,t,j})$$

$$= 1 \text{ iff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 \text{인호}} : [[비가온다]]^{w', t', x}$$

$$= 1 \text{ iff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 \text{인호}} : w' \text{에서, } t' \text{에, } x \text{에게, 비가 온다}]$$

주관성 형용사와 명제태도 동사가 공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54나)의 의미 형식에서는, ‘x = 순희’가 되며 Dox의 정의에 따라 ‘x’가 ‘철수’와 동일시되는 모순된 결과가 도출됨을 볼 수 있다.

(54) 가. 철수_i는 e_i 인호가 싫다고 생각한다.

- 나.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생각한다.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생각한다]]^{c*;w,t,j} = 1
 iff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 \text{철수}} : [[세계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순희에게 인호가 싫다}] \& x = \text{순희}] \& t = \text{now} \& j = s(c*)]$

위 (49)에서 제시한 의문형어미의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²⁰ 여기에는 앞에서 제시한 ‘믿음 대안집합’이 활용되었다.

(55) 어미들의 어휘적 의미 정보(수정된 것)

- 가. [[-느냐]]^{c*;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j} : \{p(w')(t')(x), \neg p(w')(t')(x)\} \& t = \text{now} \& j = a(c*)}] = 1$$
- 나. [[-느냐 - 고]]^{c;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j} : \{p(w')(t')(x), \neg p(w')(t')(x)\} = 1$$

다음은 동사 ‘말하다’와 ‘묻다’의 어휘적 의미 정보이다. 2절에서 살펴본 수행동사 ‘SAY’, ‘ASK’와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일반 동사 ‘말하-’, ‘묻-’의 기본

²⁰ (55)는 여부 의문문을 대답 명제들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Hamblin(1973)의 기본 생각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의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55)의 의미 형식을 가지고는 아직 의문문의 의미 합성 과정을 완전히 기술할 수 없다. 종래의 형식의미론의 관행과 달리, 본 논문에서 명제의 타입은 $\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와 같다(속성의 타입은 $\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다). (55가)에서 ‘-느냐’의 타입은 $\langle \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 \rangle$ (명제들의 집합)이어서, 선행 구성성분의 의미에 (55가)를 적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의문문은 진리치(타입 t)일 뿐, ‘명제들의 집합’이 되지 않는다. 다만, (55)의 의미 형식은 판단자 의존 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본 논문의 논지를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의문사 의문문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 합성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5)의 어미들의 타입이 $\langle \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langle \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 \rangle \rangle$ 이 되게 하고, $\{\lambda p.p, \lambda p. \neg p\}$ 로 정의되는 ‘whether’가 (55)의 어미들의 의미에 내재되는 것으로 조정하며, 의문사의 타입을 $\langle \langle s, \langle i, \langle e, e \rangle \rangle \rangle, t \rangle$ (개체 개념들의 집합)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임동식(2010:142-145)에서 소개한 집합식 함수 적용(pointwise functional application)의 방법에 따라 합성 절차를 실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의미 형식을 ‘SAY’, ‘ASK’ 로 나타낸다. (49다)의 ‘-다-고’ 에 이끌리는 내포절의 판단자는 상위절의 주어일 수도 있고, 상황맥락에 따라서는 주어 외의 지시체일 수도 있다. 그러나 (55나)의 ‘-느냐-고’ 에 이끌리는 내포절의 판단자는 언제나 상위절의 간접목적어(‘NP-에게’) 논항이다. ‘묻다’ 의 어휘기재항에만 내포절의 판단자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기로 한다.

(56) 가. [[말하-]]^{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cdot \lambda x_e \cdot \lambda y_e \cdot \text{SAY}'(y, x, p) = 1$

나. [[문-]]^{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cdot \lambda x_e \cdot \lambda y_e \cdot \text{ASK}'(y, x, p) \ \& \ j = x] = 1$

(56나)는 ‘묻다’ 의 간접목적어 논항(x_e)이 기준 판단자 ‘j’ 와 동지시됨으로써 이 문장에서 언제나 간접목적어가 판단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56)의 ‘말하다’, ‘묻다’ 를 주절 동사로 가지는 복합문에서 평서형, 의문형 어미가 실현되는 경우의 의미 형식들은 다음과 같다.²¹

(57) 가. 철수는 인호에게 비가 온다고 말한다.

[SAY($s(c^*)$, $a(c^*)$, [SAY'(철수, 인호, [비가온다])]) & $j = s(c^*)$]

나. 철수는 인호에게 비가 오느냐고 묻는다.

[SAY($s(c^*)$, $a(c^*)$, [ASK'(철수, 인호, $\forall \langle w', t', z \rangle \in \text{Dox}_{w,t,\text{인호}} : \{[\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판단자 } z \text{ 에 게 비가 온다}], \neg[\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판단자 } z \text{ 에 게 비가 온다}]\})]) \ \& \ j = s(c^*)$]

(12)' 가. 철수_i는 e_i/?ⁱ 자기_i가 인호가 싫다고 말한다.

[SAY($s(c^*)$, $a(c^*)$, [SAY'(철수, φ , [[세계 w' 에 서, 시간 t' 에, 판단자 x 에 게, 철수에게 인호가 싫다] & $x = \text{철수}$]])] & $j = s(c^*)$]

나.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말한다.

[SAY($s(c^*)$, $a(c^*)$, [SAY'(철수, φ , [[세계 w' 에 서, 시간 t' 에, 판단자 x 에 게, 순희에게 인호가 싫다] & $x = \text{순희}$) & $x = \text{철수}$]) & $j = s(c^*)$]

(13)' 가. ??철수_i는 순희에게 e_i/자기_i가 인호가 싫으냐고 묻는다.

[SAY($s(c^*)$, $a(c^*)$, [ASK'(철수, 순희, $\forall \langle w', t', z \rangle \in \text{Dox}_{w,t,x} : \{[\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 z \text{ 에 게, } x \text{ 에 게 인호가 싫다}], \neg[\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 z \text{ 에 게, } x \text{ 에 게 인호가 싫다}]\})]) \ \& \ x = \text{철수} \ \& \ z = \text{순희})] \ \& \ j = s(c^*)$]

나. 철수는 순희_i에게 e_i 인호가 싫으냐고 묻는다.

[SAY($s(c^*)$, $a(c^*)$, [ASK'(철수, 순희, $\forall \langle w', t', z \rangle \in \text{Dox}_{w,t,x} : \{[\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 z \text{ 에 게, } x \text{ 에 게 인호가 싫다}], \neg[\text{세계 } w' \text{ 에 서, 시간 } t' \text{ 에, } z \text{ 에 게, } x \text{ 에 게 인호가 싫다}]\})]) \ \& \ j = s(c^*)$]

²¹ 익명의 심사자는 (57), (12)', (13)'의 예들에서 어미 ‘-다/-느냐’ 가 나타내는 ‘SAY/ASK’ 와 동사 ‘말하-/문-’ 이 나타내는 ‘SAY/ASK’ 이 이중으로 실현되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물었다. 수행동사가 나타내는 ‘SAY/ASK’ 와 동사 ‘말하-/문-’ 이 나타내는 ‘SAY/ASK’ 의 공통점은 화자 논항과 청자 논항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두 요소가 가지는 화자/청자 논항을 매개로 상 하위 의미 술어들 간의 의존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t' 에, 순희에게, x 에게 인호가 싫다}}) & $z =$ 순희 & $x =$ 순희])
& $j = s(c^*)]$

이제까지의 주관성 형용사, 여러 종류의 어미들, 명제태도 동사들에 대한 의미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복합문의 적격성과 부적격성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12나)'에서는 $x =$ 순희, $x =$ 철수인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13가)'에서도 모순된 결과가 도출된다. 믿음 대안집합($Dox_{w,t,x}$)의 정의에 따라 x 와 z 가 동일시되어야 하는데, $z =$ 순희('문'의 정의에 따라), $x =$ 철수(대명사 'e_i/자기'의 해석에 따라)와 같이 x 와 z 가 상이한 지시체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13나)'은 ' $Dox_{w,t,x}$ '의 정의에 따라 x 와 z 가 동일시되고, 이들은 모두 '순희'를 지시체로 가지므로 적격한 문장임이 증명된다.

4.3 양상 표현

'-겠-'은 두 가지 어휘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추측'의 양상 표현 '-겠-'(-겠-1)의 의미는 인식 대안집합($Epist_{w,t,j}$)을 가지는 (60가)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고,²² '의도'의 양상 표현 '-겠-'(-겠-2)의 의미는 의도 대안집합($Intend_{w,t,j}$)을 가지는 (60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다.

(58) 가. $[-\text{겠}^{-1}]^{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 \lambda y_e .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y) = 1$

나. $[-\text{겠}^{-2}]^{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 \lambda y_e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Intend_{w,t,j} : p(w')(t')(x)(y) \ \& \ j = y] = 1$

단일한 '-겠-'(60가)을 설정하고 (60나)의 의미는 재구조화에 의해 복합 단위를 이룬 '-겠-다'('-'겠-고', '-겠으니', ...)가 가지는 의미라고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나,²³ 본 논의는 합성적 처리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60)의 중의적 처리를 고수하기로 한다.

인식 양상('추측')의 '-겠-1'을 가지는 간단한 문장의 해석 절차를 예시해 보자.

(59) $[[\text{CP 인호가 뛰겠다}]]^{w,t,j}$
 $= [-\text{다}]^{c^*;w,t,j}([-\text{겠}^{-1}]^{w,t,j}(\lambda w'' . \lambda t'' . \lambda j'' . [[\text{뛰-}]]w'', t'', j'')(인호'))$
 $= 1 \text{ iff } [-\text{다}]^{c^*;w,t,j}([\lambda w . \lambda t . \lambda j .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인호'}가 뛰다]]])$

²² 남기삼(1972)의 '-겠-'의 세 가지 용법 중 '추측'과 '능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겠-1'이다. 다음 (60)의 의미 형식은 Stephenson(2007:44)의 영어 양상 조동사 'might'와 'must'의 의미 정의에 준하여 기술한 것이다. 두 경우의 '-겠-'의 타입을 $\langle \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겠-'을 굴절소(I: Inf) 범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p 는 VP에, y 는 주어 명사구에 해당하는 의미 형식이다.

a. $[[\text{might}]]^{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 = 1]$

b. $[[\text{must}]]^{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 = 1]$

²³ 양정석(2010)에서는 의도의 '-겠-'과 보문소 '-다'가 재구조화에 의해 복합 보문소 '-겠다'를 이루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

$$\begin{aligned}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SAY}(s(c^*), a(c^*), p(w)(t)(j)) \& t = \text{now} \& j = s(c^*)] = \\
&1] (\lambda w. \lambda t. \lambda j.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t,j}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
&\text{에게, 인호'} \text{가 뛰}]]) \\
&= 1 \text{ iff } [[\text{SAY}(s(c^*), a(c^*),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t,j}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인호'} \text{가 뛰}])] \& t = \text{now} \& j = s(c^*)]
\end{aligned}$$

‘-겠-¹’ 과 명제태도 동사 ‘생각하-’ 가 공존하는 경우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60) “철수는 인호가 뛰겠다고 생각한다.”의 의미 형식:²⁴

$$\begin{aligned}
&[[\text{철수는 인호가 뛰} - \text{겠} - \text{다오생각하} - \text{다}]^{w,t,j}] \\
&= 1 \text{ iff }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Dox}_{w,t, \text{철수}} :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
&\text{Epist}_{w',t',x} : w'' \text{에서, } t'' \text{에, } x'' \text{에게, 인호가 뛰}])] \& j = s(c^*)]
\end{aligned}$$

‘철수’ 와 ‘ x ’ 가 믿음 대안집합 ($\text{Dox}_{w,t, \text{철수}}$) 에 의해 동일시되며, 다시 x 와 ‘ x'' ’ 이 ‘-겠-’ 에 의해 도입된 인식 대안집합 ($\text{Epist}_{w',t',x}$) 에 따라 동일시된다. 이는 ‘뛰겠다’ 는 추측의 주체와 ‘생각하는’ 판단의 주체가 동일 인물이라는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다.²⁵

위 2절에서는 주관성 형용사와 인식 양상의 ‘-겠-’ 이 공존하는 경우 ‘부적격성의 해소’의 특징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다((9다) 참조). 다음에 되풀이 제시하는 예들에서, 왼쪽의 주관성 형용사 문장은 부적격하나, ‘ \Rightarrow ’ 표시 오른쪽의 ‘-겠-’ 을 가진 문장은 적격성을 회복한다.

- cf. (10) 나. ??순희는 인호가 싫다. \Rightarrow 순희는 인호가 싫겠다. ((9다) 참조)
 (11) 가. ??순희는 인호가 싫으냐? \Rightarrow 순희는 인호가 싫겠느냐?
 (12) 나.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말했다.
 \Rightarrow 철수는 순희가 인호가 싫겠다고 말했다.
 (13) 가. ??철수_i는 순희에게 e_i /자기_i가 인호가 싫으냐고 물었다.
 \Rightarrow 철수_i는 순희에게 e_i /자기_i가 인호가 싫겠느냐고 물었다.

(10나)의 ‘-겠-’ 을 가지는 문장의 의미 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⁶

(61) “순희는 인호가 싫겠다.”의 의미 형식:

$$\begin{aligned}
&[[\text{-다}]^{w,t,j} ([[\text{-겠-}]^{w,t,j} (\lambda w''. \lambda t''. \lambda j''. [[\text{인호가 싫} -]^{w'',t'',j''}) (\text{순희}')]) \\
&= 1 \text{ iff } [\text{SAY}(s(c^*), a(c^*), \exists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t,j} :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순희'} \text{에게 인호'} \text{가 싫다} \\
&\& x = \text{순희}])] \& t = \text{now} \& j = s(c^*)]
\end{aligned}$$

²⁴ ‘-다’ 는 ‘-는다’, ‘-라’ 와 함께 ‘-다’ 의 변이형태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해서는 양정석 (2012)를 참고하기 바람.

²⁵ ‘ $j = s(c^*)$ ’ 가 나타내는 바는 철수의 생각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자는 여전히 화자라는 점이다.

²⁶ ‘-었-’ 을 개입시킨 (a)는 여전히 부적격한 표현이며, 특별한 맥락에서 그 부적격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 ??순희는 인호가 싫었다. (= (51나))

이는 앞의 ‘??순희는 인호가 싫다.’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i) 그 부적격성의 발생, ii) 특정 맥락에서의 부적격성의 해소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63)에서는 ‘ $Epist_{w,t,j}$ ’에 의한 ‘ j ’와 ‘ x ’의 동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겠-’이 표현하는 인식 양상은 의무적이 아니어서, 주관성 형용사 ‘싫-’에 의한 ‘ $x = \text{순희}$ ’, ‘-다’에 의한 ‘ $j = s(c^*)$ ’의 판단자 결정을 바꾸어 ‘ $j = x$ ’의 관계를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식 양상 요소의 경우에 한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기로 한다.²⁷

(62) 판단자 의존의 인접성 요건:

인식 양상 요소가 그 상위 요소와 판단자 의존 관계를 수립한 경우, ‘ $Epist_{w,t,j}$ ’의 판단자 ‘ j ’와 가능세계의 판단자(‘ x ’)의 동일시를 수립하는 더 확장된 동지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63)에서는 ‘-겠-’이 인접한 상위 요소 ‘-다’와 관련하여 ‘ $j = s(c^*)$ ’의 관계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동지시 관계가 더 확장되어 ‘ $x = \text{순희}$ ’와 동지시되는 것이 (64)에 의해 제약된다. 이에 따라 (63)의 문장이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다.

의도의 ‘-겠-²’를 가지는 (14) 문장들의 적격성 대비(‘나는/?? 순희는 그곳에 가겠다.’)도 그 도출된 의미 형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60) 나. $\llbracket -\text{겠}^{-2} \rrbracket^{w,t,j} = [\lambda p_{\langle s, \langle i,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cdot \lambda y_e \cdot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Intend_{w,t,j} : p(w')(t')(x)(y) \ \& \ j = y] = 1$

(14)' 가. “나는 그곳에 가겠다.”의 의미 해석: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Intend_{w,t,j}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 s(c^*) \text{는 그곳에 간다}]) \ \& \ x = s(c^*)] \ \& \ t = now \ \& \ j = s(c^*)$

나. “?? 순희는 그곳에 가겠다.”의 의미 해석: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Intend_{w,t,j} : [\text{세계 } w' \text{에서, 시간 } t'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순희'는 그곳에 간다}]) \ \& \ x = \text{순희}] \ \& \ t = now \ \& \ j = s(c^*)$

(14가)'에서 유도된 의미 형식은 j 와 x 가 의도 대안집합($Intend_{w,t,j}$)의 정의에 따라 동일시되는데, 이는 $x = s(c^*)$, $j = s(c^*)$ 의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14나)'의 유도된 의미 형식은 ‘ $j = s(c^*)$ ’이면서 ‘의도’ 대안집합의 정의에 따라 ‘ $j = x$ ’인 x 가 다시 ‘ $x = \text{순희}$ ’이 되므로, 결국 화자와 순희가 동지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2절에서 제시한 의문문의 (15), 복합문의 (16), (17)도 ‘-겠-²’의 의미 형식 (60나)를 바탕으로 그 적격성의 차이가 증명된다.

²⁷ Stephenson(2007: 131)은 영어의 ‘might’를 가진 (a)와 같은 예를 바탕으로 의무적 자기지향성 해석(obligatory de se interpretation)에 대한 인접성 요건(immediateness requirement)을 상정한 바 있다. (62)와 같이 서술함으로써 한국어의 경우와 영어의 (a)의 경우를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a. Sue thinks that Bill thinks it might be raining.

그는 (a)의 경우와 함께 (b)의 경우(이를 위해 ‘원함 대안집합 Want alternatives’이라는 새 대안집합 개념을 도입한다)도 의무적 자기지향성 해석이 해당 판단자 의존 요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판단자 의존 요소에 적용되는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b)는 (62)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b. Sue wants Bill to want to go to the party.

4.4 증거성 표현

필자는 ‘-더-’의 의미를 인식 양상과 직접 증거성 의미의 결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의 의미를 인식 양상 의미로 기술한 것은 이정미(2011)에 힘입은 바 크다.²⁸ 또한, 임동식(2010)을 따라서 직접 증거성에 대한 요구를 영역 조건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앞의 2절에서 논한 ‘-더-’의 비-동지시 제약은 평서형어미 ‘-더라’, 의문형어미 ‘-더냐’가 가지는 이 두 측면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²⁹

(63) 가. $[-\text{더라}]^{c*;w,t,j}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
 $\& t'' < now \& t = now \& j = s(c*)] = 1$

나. $[-\text{더냐}]^{c*;w,t,j}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j}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x} : \{p(w'')(t'')(x'), \neg p(w'')(t'')(x')\}) \& t' < now$
 $\& t = now \& j = a(c*)] = 1$

(64) 가. $[-\text{더라} - \text{고}]^{c;w,t,j}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 \& t'' < t] = 1$

나. $[-\text{더냐} - \text{고}]^{c;w,t,j}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j}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x} :$
 $\{p(w'')(t'')(x'), \neg p(w'')(t'')(x')\} \& t' < t] = 1$

²⁸ 이정미(2011:75-110)에서는 증거성 의미를 인식 양상의 일종으로 파악해야 할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건문의 선행절에 ‘-더-’가 실현되는 점, ‘말하다’의 보문에 실현되는 ‘-더-’의 증거 획득자가 ‘말하다’의 주어인 점, ‘묻다’의 보문에 실현되는 ‘-더-’의 증거 획득자가 간접목적어(‘NP-에게’) 논항인 점, ‘-더-’가 명령/청유형의 보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점, ‘생각하다/믿다’의 보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점, 비-동일 주어 제약이나 ‘양상 중속화’ 현상 등에서 영어의 양상소 ‘must’와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점 등이다. ‘비-동일 주어 제약’에서 ‘-더-’가 ‘must’와 공통된다는 그의 관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익명의 심사자는 이정미(2011)에서와 같이 ‘-더-’를 양상 연산자로만 설정하여 ‘직접 증거성’에 관한 뒤(67)의 제약을 제거할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필자가 ‘-더-’의 의미의 일부로 ‘Epist’와 같은 양상의 의미 요소를 상정하는 것은 그 판단자 의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2절의(24)를 통해서 보이고자 한 점이다. 이에 더하여(67)의 제약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점은 ‘must’가 갖지 못한 의미 국면이라고 본다.

²⁹ ‘-더-’는 통사 단위를 이루지 못하고, ‘-더라’, ‘-더냐’ 등이 독립된 통사 단위로서 단일한 어휘항목이 되는 것으로 본다(각주 8 참조). 또 두 통사 단위인 ‘-더라’와 ‘-고’, ‘-더냐’와 ‘-고’가 재구조화에 의해 복합적 어휘항목 ‘-더라고’, ‘-더냐고’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양정석 2010).

(65)의 ‘-더-’ 요소들은 모두 인식의 시간이 기준 시간에 앞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시되었다. 이는 ‘-더-’가 ‘인식시 과거 시제’의 표지라고 주장한 한동완(1996)의 관찰을 반영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이 ‘-더-’가 시제 표지인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시간적 선후관계의 명시는 ‘-자, -다가’와 같은 연결어미들의 의미 기술에도 필요한데, 이 점에 근거해서 이들을 시제 표지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어 시간요소들의 시간 해석에 관하여 양정석(2011, 2015)에서 자세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증거성 표현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는 모두 판단자 개념을 매개로 한다. 인식 대안집합을 바탕으로 기술되는 인식 양상의 의미가 기준 판단자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직접 증거성 의미는 함수의 영역 조건에 기준 판단자에 대한 참조를 명시함으로써 나타내었다. 영역 조건에 명시된 ‘직접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³⁰

- (65) j 가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i) j 가 자신에 관한 서술이 아닌 사건 또는 상태 p 가 참임에 대한 지각적 근거를 가지거나,
 ii) j 가 자신의 내적 감각 상태에 관한 서술 p 의 주체라는 뜻이다.

i) 과 ii)의 두 경우를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65)' i) 비가 오더라/그 아이는 참 총명하더라/네 말이 맞더라/젓먹이동물도 알을 낳더라/오바마가 한국에 오더라. (이들은 모두 이정민2014의 예문임)
 cf. ?? 내가 오더라.
 ii) 나는 인호가 싫더라/나는 춥더라.
 cf. ?? 너는/?? 순희는 인호가 싫더라/?? 너는/?? 순희는 춥더라.

(67ii)는 (67ii)' 과 같이 자신의 감각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를 위한 기술이다. 자신의 감각에 관한 서술이라도 내적 감각 상태 아닌, 감각 작용으로서의 사건의 표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예의 부적격성은 이에 따라 설명된다.

- (66) ?? 내가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더라.

‘-더-’ 표현의 의미 기술에 ‘직접 증거’에 관한 영역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은 임동식(2010:177)을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의 판단자 의존 의미를 인식 양상의 정의를 통하여 포착하였고, 화자가 직접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신 판단자 (j)가 직접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는 ‘-더라고’와 ‘-더냐고’가 이끄는 내포절의 내용이 상위문의 주어와 ‘NP-에게’ 논항을 판단자로 취하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직접 증거에 대한 (65)의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더-’ 표현의 의미 정의를 더욱 실행가능성 있는 함수 표현으로 만들었다.

위와 같은 의미 기술을 바탕으로 (19), (20) 문장의 적격성의 차이가 설명된다.

- (19)' 가. ??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

나.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

[[내가대홍극장에들어가더라]]^{c:w,t,j}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³⁰ 이정민(2014)에서는 ‘주관적 경험’을 ‘외적 방향(outward directed)’과 ‘내적 방향(inward directed)’의 두 하위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적 방향의 주관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주관성 형용사가 나타내는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65ii)의 ‘내적 감각 상태’는 이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begin{aligned}
&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 t', j} : p(w')(t')(x)), \\
& \quad \& t'' < \text{now} \ \& j = s(c^*)] = 1](\lambda w'''. \lambda t'''. \lambda j'''. \\
& \quad \llbracket \text{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 \rrbracket^{c; w''', t''', j'''}) \\
&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 이고, } j \text{ 는 } p \text{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
& \quad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 t', j} : p(w')(t')(x)) \\
& \quad \& t'' < \text{now} \ \& j = s(c^*)] = 1](\lambda w'''. \lambda t'''. \lambda j'''. \\
& \quad [w''', t''' \text{ 에, } j''' \text{ 에게 } a(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 = 1 \text{ iff }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 t', j} : [w', t' \text{ 에,} \\
& \quad x \text{ 에게 } a(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 t'' < \text{now} \ \& j = s(c^*)]
\end{aligned}$$

(20)' 가.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

$$\begin{aligned}
& \text{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Dox}_{w, t, j} : \forall \langle w'', t'', x' \rangle \\
& \in \text{Epist}_{w', t', x} : \{[w'' \text{ 에, } t'' \text{ 에, } x' \text{ 에게 } s(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 \quad \neg[w'' \text{ 에, } t'' \text{ 에, } x' \text{ 에게 } s(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 \quad \& t' < \text{now} \ \& j = a(c^*)
\end{aligned}$$

나. ??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

(19가)', (20나)' 은 '-더랴', '-더냐' 가 부여하는 영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19가)' 을 예로 들면, (67) 과 같이 함수 적용이 이루어진 의미 형식을 바탕으로 영역 조건의 충족 여부가 판정된다. 영역 조건의 '직접 증거' 는 그 정의 (65i), (65ii) 와 연결되는데, 둘 다 충족되지 않는다. 우선 (67) 에서는 자신에 관한 사건의 서술이 직접 증거의 한 요건인 (65i) 에 위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67) 의 밑줄 친 부분은 내적 감각 상태에 관한 서술이 아니므로 (65ii) 에도 위배된다. (20나)' 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67) ??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랴.

$$\begin{aligned}
&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ext{ 이고, } j \text{ 는 } p \text{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
& \quad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 t', j} : p(w')(t')(x)) \\
& \quad \& t'' < \text{now} \ \& j = s(c^*)] = 1](\lambda w'''. \lambda t'''. \lambda j'''. [w''', t''' \text{ 에, 판단자 } j''' \text{ 에게,} \\
& \quad \underline{s(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end{aligned}$$

2절에서 제시한 '-더-' 구문의 복합문 (21가), (22나) 의 부적격성의 원인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 가. ?? 철수_i 는 e_i/자기_i 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나. 철수는 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begin{aligned}
& [\text{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Epist}_{w, t', \text{철수}} : [w', t' \text{ 에, } x \text{ 에게} \\
& \quad a(c^*) \text{ 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 t'' < t]
\end{aligned}$$

(22)' 가. 철수는 너에게 내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고 물었다.

$$\begin{aligned}
& [\text{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text{Dox}_{w, t, a(c^*)} : \forall \langle w'', t'', x' \rangle
\end{aligned}$$

$\in Epist_{w',t',x} : \{[w'' \text{에}, t'' \text{에}, x' \text{에게 } s(c^*) \text{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neg[w'' \text{에}, t'' \text{에}, x' \text{에게 } s(c^*) \text{가 대홍극장에 들어간다}]\}$
 $\& t' < t]$

나. ?? 철수는 너_i에게 e_i/네_i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고 물었다.

그런데, 영역 조건에 위배되는 예는 맥락에 따라 다시 적격성을 회복할 수 있다. 적절한 화용적 보충(전제 보충: presupposition accommodation)이 가해져서 다시 그 영역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가)'의 예에서는, 관찰되는 '나'가 꿈과 같은 특별한 맥락 속의 사건의 주체라면 관찰하는 '나'가 그에 대한 직접 증거를 가질 수 있다.

'-더-' 구문의 복합문인 (21가), (22나)의 부적격한 표현들도 적격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는 앞의 주관성 형용사, 의도의 '-겠-'의 경우와 대조되는 점이다. 이들 구문에서도 동지시와 관련한 제약이 작동한다. 그러나 '-더-' 구문에서는 맥락에 따른 부적격성 해소의 기제가 이들보다 훨씬 유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의 제약이 '전제'로서, 영역 조건으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제에 위배되는 경우는 그 표현이 적용되는 상황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부적격성을 해소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다음은 주관성 형용사와 '-더-'가 공존하는 예이다. (25나)'와 (26가)'의 부적격성은 직접 증거에 관한 영역 조건의 위배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25나)'에서는 판단자 j 가 화자인데 '-더라'의 논항에 해당하는 '너는 인호가 싫'은 청자의 내적 감각 상태의 서술어이어서 (65ii)에 어긋난다. (26가)'도 영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문이다.

(25)' 가. 나는 인호가 싫더라.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w', t' \text{에}, 판단자 } x \text{에게},$
 $s(c^*) \text{는 인호가 싫다}]) \& x = s(c^*)] \& t' < now \& j = s(c^*)]$

나. ?? 너는 인호가 싫더라.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SAY(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p(w')(t')(x)) \& t' < now \& j = s(c^*)] = 1](\lambda w'' . \lambda t'' . \lambda j''' . [[w''', t''' \text{에}, 판단자 } j''' \text{에게},$
 $a(c^*) \text{에게 인호가 싫다}] \& j''' = a(c^*)])]$

(26)' 가. ?? 나는 인호가 싫더냐?

$\lambda p : p \in D_{\langle s, \langle i,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이고, j 는 p 에 관한 직접 증거를 가질 것.

$[[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Dox_{w,t,j} :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x} : \{p(w'')(t'')(x'), \neg p(w'')(t'')(x')\}) \& t' < now \& j = a(c^*)] = 1](\lambda w'' . \lambda t'' . \lambda j''' . [[w''', t''' \text{에}, j''' \text{에게}, s(c^*) \text{에게}$
 $\text{인호가 싫다} \& j''' = s(c^*)])]$

나. 너는 인호가 싫더냐?

$[[ASK(s(c^*), a(c^*), \forall \langle w', t', x \rangle \in Epist_{w,t',j} : \{[w', t' \text{에}, 판단자$

x 에게, $a(c^*)$ 는 인호가 싫다], $\neg[w', t'$ 에, 판단자 x 에게, $a(c^*)$ 는 인호가 싫다]) & $x = a(c^*)$] & $t'' < now$ & $j = s(c^*)$]

2절의 (27나)와 (28가)도 영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문이다. ‘말하다’의 주어인 ‘철수’, ‘묻다’의 상대자 논항인 ‘순희’가 판단자 j 가 되므로 이들과 다른 사람의 내적 감각 상태에 대한 서술은 (67ii)에 위배된다.

(27) 가. 철수 _{i} 는 e_i /? 자기 _{i} 가 인호가 싫더라고 말했다.
나. ??철수는 내가/순희가 인호가 싫더라고 말했다.

(28) 가. ??철수 _{i} 는 순희에게 e_i /자기 _{i} 가 인호가 싫더라고 물었다.
나. 철수는 순희 _{i} 에게 e_i 인호가 싫더라고 물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예들 중에서 복합문의 내포절에 ‘-더’가 실현되는 구문들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에서 ‘-더라’ 또는 ‘-더냐’의 판단자는 상위절의 주어 또는 간접목적어(‘NP-에게’) 논항이었다. 한편, 정경숙(2007), 임동식(2011) 등에서는 ‘-더.’가 내포절에서 실현되는 것을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임동식(2010:119)은 ‘S-더라고’ 형식을 가지는 내포문을 ‘직접인용문’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27가)와 같이 ‘자기’를 그 주어로 가지는 내포절이 직접인용절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내포절에 실현되는 ‘-더.’는 언제나 화자를 가지는 발화맥락을 상정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관찰은 이 구문의 제약이 기준 판단자와의 동지시에 바탕을 둔 직접 증거성 여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들 이론에서는 이 점을 만족스럽게 포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접근 방안들의 문제는 이들이 기준 판단자의 매개변수를 갖지 않은 이론이라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준 판단자 개념을 가지는 이 논문의 접근 방안이 ‘-더.’가 실현되는 단순문과 복합문의 예를 체계적으로 기술,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고 결론짓는다.

5. 마무리

이상에서는 판단자 의존의 해석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어의 구문으로 주관성 형용사 구문, ‘의도’의 ‘-겠.’ 구문, 인식 양상의 ‘-겠.’ 구문, ‘-더.’ 구문을 검토하여 그 의미 해석 절차를 기술하였다. 판단자 의존의 핵심적 형식은 ‘ $j = x$ ’와 같은 것이다. 주관성 형용사와 의도의 ‘-겠.’은 그 상위 판단자 j 와의 동일시를 직접 규정하는 데 비해, 양상 요소는 자신의 판단자 j 와 그 하위 판단자인 가상적 세계에서의 판단자 x 의 동일시를 대안집합의 정의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주관성 형용사 구문, ‘의도’의 ‘-겠.’ 구문, ‘-더.’ 구문에서는 상·하위 의미적 술어들 간의 판단자 의존성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인식 양상의 ‘-겠.’ 구문에서는 상·하위 의미적 술어들 간의 판단자 의존성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이 관찰을 바탕으로 ‘판단자 의존의 인접성 요건’이라는 일반적 제약을 이끌어냈다.

양상 표현 및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매개 개념으로 Stephenson(2007)의 ‘믿음 대안집합’, ‘인식 대안집합’, ‘의도 대안집합’을 활용하였는데, 이들 대안집합은 기준 판단자와 가능세계의 판단자의 동일성(자기지향성)을 포착함으로써, 내포적 표현의 판단자 의존성을 구현하는 주요한 장치이다. ‘생각하다/믿다’의 의미 기술을 위해서는 믿음 대안집합을, 인식 양상의 ‘-겠-’ 표현의 의미 기술을 위해서는 인식 대안집합을, 의도의 양상 의미를 가지는 ‘-겠-’ 표현의 의미 기술을 위해서는 의도 대안집합을 활용하였다. 특히 증거성 표현 ‘-더-’의 의미 기술을 위하여 ‘인식 대안집합’을 활용하였다.

기준 판단자 및 대안집합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게 된 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주관성 형용사 구문의 동지시 제약과 그 제약 해소의 이유를 합성적 절차의 제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의도의 ‘-겠-’ 구문의 동지시 제약과 그 제약 해소의 이유를 합성적 절차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더-’ 구문의 비-동지시 제약과 그 제약 해소의 이유를 증거성 표현이 전제로서 가지는 ‘직접 증거’ 요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주관성 형용사와 ‘-겠-’, 주관성 형용사와 ‘-더-’, 주관성 형용사와 ‘-겠-’과 ‘-더-’가 공존하는 구문에서 판단자 의존의 관계가 맺어지는 현상을 원리에 입각하여, 합성적 절차의 제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선행 연구에서 주관성 형용사의 ‘인칭 제약/동지시 제약’과 ‘-더-’ 구문의 ‘비-인칭 제약/비-동지시 제약’으로 지칭해 온 이들 구문의 제약 현상이 ‘기준 판단자’의 개념을 매개로 한 통합적 설명을 얻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양상 표현인 복합 형식, ‘-는가/나 보다’, ‘-는가/나 하다’, ‘-는가/나/지 싶다’, ‘-고 싶다’, ‘-는 듯싶다’, ‘-을 성싶다’, ‘-는 모양이다’, ‘-을 수 있다’, ‘-음직하다’, ‘-을 법하다’, ‘-는 것 같다’ 등은 통사적으로 복합문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들에 대한 의미 해석 절차를 판단자 의존성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일이 한국어 주관적 판단 구문의 완전한 기술을 위해서 향후 과제로 요구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한 의문형어미의 의미 기술을 토대로 하여, 명령형어미, 청유형어미, 그리고 양상 의미의 연결어미들에 대해 판단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의미 해석 절차를 기술하는 일이 향후 과제로 주어진다.

<References>

- 김건희. 2005. 한국어 형용사 논항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김영희. 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국어학 10: 37-80.
 김홍수. 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남기심. 1972. 현대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합병호: 213-238.
 남기심. 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서정수. 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1: 97-127.
 성기철. 1979. 경험과 추정, 문법연구 4: 214-233.

- 손호민 (Sohn, H.). 1975. Retrospection in Korean, 어학연구 11-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송민영 (Song, M.). 1999. *The Semantics of Tense and Propositional Attitudes*. PH.D. Thesis, Georgetown University.
- 송재목. 1998.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135-169.
- 양인석 (Yang, I.). 1972. *Korean Syntax*. 서울: 백합출판사.
- 양정석. 1997. 개정판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양정석. 2008. 한국어 시간요소들의 형태통사론, 언어 33-4: 693-722.
- 양정석. 2010. 개정판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 양정석. 2011. 한국어 통사구조와 시간 해석. 한국문화사.
- 양정석. 2012. '느' 분석론과 '있다', '없다'의 문제, 한글 296: 81-122.
- 양정석. 2015. 형식의미론의 국어 시간요소 의미 분석 검토, 배달말 56: 31-76.
- 염재일. 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언어와 정보 9-2: 1-22.
- 유동석. 1981. '-더-'의 의미에 대한 관건, 관악어문연구 6: 205-226.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기용. 1998. 시제와 양상: 가능세계 의미론. 태학사.
- 이익환·이민행. 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 이정미 (Lee, J.). 2011. *Evidenti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Tense: Evidence from Korean*. PH.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이정민 (Lee, C.). 2012. Compositionality reconsidered: with special reference to cognition. 언어와 정보 16-2: 17-42.
- 이정민 (Lee, C.). 2014. Evidentials and modals: what makes them unique,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이홍배 (Lee, H.).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Seoul: Pan Korea Book.
- 임동식 (Lim, D.). 2010. *Evidentials and Interrogatives: A Case Study from Korean*. PH.D.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임홍빈. 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7: 433-475.
- 임홍빈. 1993. 다시 -더-를 찾아서, 국어학 23: 255-323.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정경숙 (Chung, K.). 2007. Spatial deictic tense and evidentials in Kore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187-219.
- 채희락. 2006. 융합 현상과 '(-고)하-'의 관련성: [대]형 표현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10-1: 1-20.

-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 Chierchia, Gennaro. 1989. Anaphora and attitudes De Se, Bartsch, R. et al. (eds.), *Language in Context*: 1-31.
- Von Fintel, Kai & Irene Heim. 2011. *Intensional Semantics*. ms, MIT.
- Von Fintel, Kai & Anthony S. Gillies 2007. CIA leaks, Ms., MIT & Univ. of Michigan. URL: http://mit.edu/fintel/www/cia_leaks.pdf.
- Hamblin, Charles L. 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41-53.
- Heim, Irene & Angelika Kratzer. 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Oxford: Blackwell.
- Kamp, Hans & Uwe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uwer.
- Kapland, David. 1989. Demonstratives, Almog, J. et al.(eds.), *Themes from Kaplan*.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zer, Angelik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Eikmeyer, Hans-Jürgen & Hannes Rieser(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38-74. Berlin Mouton de Gruyter.
- Kratzer, Angelika. 1991. Modality, von Stechow, A. & D. Wunderlich(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639-650. Mouton de Gruyter.
- Laserson, Peter. 2005. Context dependence, disagreement,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8: 109-152.
- Lewis, David. 1979. Attitudes De Dicto and De Se, *Philosophical Review* 88: 513-543.
- Portner, Paul. 2004. The semantics of imperatives within a theory of clause types, Watanabe, K. & Young R. B.(ed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s Theory* 14: 235-52. Ithaca, NY: CLC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Linguistics Department.
- Portner, Paul.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talnaker, Robert. 1978. Assertion, Cole, P.(ed). *Syntax and Semantics* 9: 315-332. Academic Press.
- Stalnaker, Robert. 2002.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 701-721.
- Stephenson, Tamina C. 2007. *Towards a Theory of Subjective Meaning*. PH.D. Thesis, MIT.

접수 일자: 2015년 06월 03일
수정 일자: 2015년 06월 15일
게재 결정: 2015년 06월 15일